

# 東洋佛敎의 概說

東京 金 泰 洽

## 四、朝鮮의 佛敎

### 라、高麗時代의 佛敎

(四百七十年間)

高麗時代의 四百七十年間은 禪敎對立의 時代라 할 수 있습니다. 此時期의 特長으로 볼 것은 두가지로써 볼 수가 있나니 一、僧科를設치야 公廳上宗旨를 分立한事 二、大藏經及續藏經을 開雕公布한事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此時代에 있어서 有名한 佛敎學者로는 一、支那의 天台學을 傳한 諦觀大師 二、宋에 入하야 華嚴天台學을 再興한 義天國師 三、臨濟禪을 傳한 太古禪師及懶翁王師가 時代의 先驅者라 할 수 있습니다.

高麗太祖가 儒科에 照準하야 僧科를設치야 國家認定의 宗派와 宗派所屬의 僧徒를 分別하기 明確한 構想을 示하엿습니다. 諦觀大師는 吳越王의 招請에 應하야 王命에 依하야 入宋하야(九六〇) 法理 理應 純英의 後를 繼承하게 되엿습니다. 그러나 遂히 歸國하거 아니하엿으므로 支那의 天台學은 復興식혔스나 高麗의 天台學은 中絶의 緣運을 만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엿습니다. 그리고 二百一十年後에 入宋한(一〇八六) 大覺義天國師는 獨히 華嚴學의 正統을 傳할만하나니 特히 天台學을 將來하엿습니다. 그것은 大覺國師에서 實首敎觀象天台敎觀과 南山律鈔及因明等論을 傳하엿다함을 보아서 推察하는바입니다. 大覺國師에서 入宋하심은 求法을 目的한 外에 集書를 兼

하시엿습니다. 大覺國師에서 入宋하시기 前 顯宗의 朝에 契丹의 兵을 禪讓退治하기 爲하야 大藏經板을 開雕하기 始作하야 文宗의 朝에 大成하게 된바 大覺國師에서 入宋歸國하진後에 敎藏都置을 設하고 普隆遠, 宋, 日本에 購集하야 四千餘卷을 刊行하엿습니다. 此는 實로 朝鮮佛敎史에 空前絶後의 壯舉라고 할 수 있습니다. 此朝鮮佛敎의 光彩인 藏經板만은 今後萬古에 不滅의 光을 宜할만하리世界的의 珍寶를 疑心치 아니하엿습니다. 此經板은 元來大公山符仁寺에 藏置하엿다가 高宗의 十九年(一一三二)에 蒙古兵의 亂을 因하야 不幸히 燬燒의 厄을 만나게 되엿으므로 高宗의 廿四年으로 부터 三十八年에 이르기까지 十六年間에 在하야 宋本을 基礎로 하야 丹本을 校合하야 固有의 前後二藏을 悉照함으로써 刻藏史에 寶典인 麗藏을 再刻하엿습니다. 이것이 現今海印寺에 奉安되어 在는 藏經입니다.

麗朝의 初에 僧科를設한은 諸宗分別의 機運을, 作한바이다. 大覺國師時代에 이르러서는 戒律, 法相, 涅槃, 法性, 圓融, 禪寂等 六宗의 名稱이 在

섯습니다. 此는 實로 前代를 繼續한者에 不遇하나 寬廣한 敎界에 비토소 宗派意識을 判別하게 한者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此에 天台 曹溪의 二宗을 加하면 麗朝初期의 佛敎는 八宗으로써 計算하게 됩니다. 天台宗은 大覺國師에서 再興한바요 曹溪宗은 此時代中葉(一一〇〇)의 普照知訥禪師가 定慧社에 稱名한者입니다. 普照禪師에서 師承한 바가 업습을 볼것기르면 曹溪宗은 朝鮮自發의 宗이라 고 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此에 前期로 부터 繼紹한 九山禪門의 禪寂宗에 對하야 特히 曹溪宗으로 부르게 된인가 생각합니다.

普照의 嗣慧謀의 禪門拈頌集三十卷은 後에 僧科에 充用케 된者로서 禪宗에 不可缺名著입니다. 禪宗으로 말하면 前時代의 末葉에 있어서 五宗이 悉皆 傳來하엿스나 此時代의 初葉에 있어서 法眼宗派의 一派가 玄을로 繁榮하엿고 末葉에 至하야서는 二甘露門이라고 稱하는 太古, 懶翁의 二師에 依하야 臨濟의 法系가 크게 勃興하게 되엿습니다. 그리고 此 시 曹溪宗이 在섯으므로 末葉元宗時代(一一六〇—一二七四)에 이르러서는 五敎兩宗의 稱이 在섯습니

다. 兩宗이라 함은禪寂, 曹溪를指한바요 五宗이라 함은大覺의戒律, 法相, 圓融三宗外에 涅槃, 天台를加한것입니다. 이와가은故로 高麗時代의宗派는 七宗又是八宗이 되었습니다.

마 朝鮮時代의佛敎 (五百年間)

朝鮮時代의五百年間은 禪宗獨占의時代가 되었습니다. 高麗時代에잇서서는 禪宗外에 敎를代表한 華嚴宗이 隆盛하였것스나 그末葉에이르러서 內로는 儀禮迷信의弊를 增長케되고 外로는 忠烈王의三十年(一三〇四)에 國學을세우고 學校를給하여 儒生을養成함으로써 儒風이日로한가지 勃興하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李朝의太宗以後의排佛의風潮가 次第로勢力을 얻게된지라 太宗의六年(一四〇六)에至하여 十一宗을併合하여 六宗이 되게하였습니다. 十一宗이라 함은曹溪, 總持, 天台, 疏字, 天台法事, 華嚴, 道門, 慈恩, 中道, 神印, 南山, 始興此等입니다. 此等十一宗은 麗朝末期의分枝로서其中의曹溪宗은 禪寂宗을 併合한것입니다 就中天台宗에疏字, 法事의二宗이分할과如한者 總

持宗外에, 神印宗이잇습과始한者 華嚴宗外에 道門宗이잇습과如한者 다시始興宗이잇습과如한者는 朝鮮佛敎發達의特色이라하겠습니다. 그러나 太宗께서合을下하여 中道, 神印二宗을 合하여中神宗을상고總持, 南山二宗을合하여 總南宗을상고 天台의疏字, 法事二宗을合하여 天台宗을상고 華嚴道門二宗을合하여 華嚴宗을상고 此에曹溪, 慈恩, 始興의三宗을加하여 七宗을상제하였습니다. 그러나併合시킨자를보건대 天台, 華嚴의二宗은 그럴듯하나 中道, 神印의二宗을合할과 總持南山의二宗을合한것가은것은 恰히竹과木을 合할과갓습니다. 此는內容의一致로부러 그리함이아니오 오즉施設上의便宜로부러 그리한것이萬一內容上에 共通點이잇서서 此併合이 잇섯다고할入 것가르던 當時의佛敎는 넘어도混亂狀態에잇섯다고볼수가잇습니다.

次에世宗의六年(一四二四)에至하여 議政府의啓에依하여 更히曹溪, 天台, 總南의三宗을合하여 禪宗을상고 華嚴, 慈恩, 中神, 始興의四宗을 合하여 敎宗을상하여 七宗을禪敎二宗에併合식히습니

다. 此는일리 麗朝에在한 禪敎兩宗의僧科를 設한後身을想한것이나 彼에在하여는 單히試驗의便宜上으로부러 兩宗을 分別한것이오 此에在하여는 政事의 權威에依하여 七宗을合하여 兩宗을상한것입니다. 그런中에 그의併合이 油和水를 一器에담은것과가르니 太宗時代에總南, 中神의二宗이 併의無意義하게 併合된것입니다. 이제와서 다시總南宗을 禪宗으로하고 中神宗을敎宗으로함과가들은 佛敎의敎理와實際를 政治家가 제마음대로 左右한것이라고보지아니할수가잇습니다.

當時僧科의典으로써 禪宗에는傳燈錄, 拈頌集을 敎宗에는華嚴經, 十地論을使用할것이오 此後禪과 華嚴의二宗을 除한外에 他의諸宗의敎義가 悉皆永廢의運命을來케함은 何等의怪訝할點이잇습니다. 當然의敎라고 하겠습니다. 거제다가 成宗이 가장僧侶를 憎惡하고 度僧의禁을嚴히하여 度僧이업는者는 還俗케하였스며 次燕山君의十年(一五〇四)에圓覺寺를 妓坊으로改하고 興天, 興德二寺를 公廩으로改하여 僧科가自然히停止케되었스니 佛敎의衰微가 其極에達하였습니다.

中宗을지나서 明宗의七年(一五五二)에至하여는 攝政太后의意를따라서 普雨大師께서 大히佛敎를 興隆하고 禪科를復하고 度僧을給與하여 八道의寺刹을一時에 更新시켰스나 儒林의反抗이 猛烈하게이러나서 드디어普雨大師를 妖僧으로譏訴하여 冤罪로써 濟州島에杖死케하였습니다. 그렇스로 僧科는다시廢止되고 더욱더욱히 佛敎의不振을 誘致케하였습니다. 淸虛大師와 泗溟大師는 實로此復興의際에 輩出한人格者로써 壬辰兵亂에際하여 義兵의將軍으로써 國家에對한功績이 實로偉大합니다.

麗末에 太古, 懶翁二人이 臨濟의宗風을 大振하였습니다. 李朝의初 그의인해幻菴, 無學二人이 잇스니無學大師는 王師로써威嚴이잇섯습니다. 그의嗣頤虛의法孫이 世宗의朝에盛況을 極하였스나 宣宗의朝에이르러서는 幻菴의法孫을繼承한 淸虛大師가 國家에功勞가잇습니다. 그의修道의體驗에依하여 一身에禪敎를 統一한지라 其後淸虛의法孫만이 호을로天下에彌漫하여 禪宗中에敎宗을併吞하게되었습니다. 涵虛大師의慧學과淸虛大師

의戒行은朝鮮佛敎史上에最後의光彩라고하겠습니  
 李朝의末葉에 僧侶의入城을禁制한것은 理由는  
 如何間에 朝鮮佛敎에對하여 此에過한耻辱이 업  
 스티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우선先師께서는 이와  
 가은耻辱을 바다가며 卒은죽게도 참아나리릿습  
 니다。그러하온것이 李太王의三十二年(一八九五)  
 에日本日蓮宗僧佐野前勵의上書에依하여 겨우入城  
 의禁이풀리고 明治四十三年(一九一〇)에 至하여  
 비로소入城布敎를試하게되엇습니다。此時李晦光一  
 派가日本曹洞宗과聯盟의約을結하여 朝鮮佛敎로하  
 야공 曹洞宗에附屬코져하엿스나 朴漢永 韓龍雲

等諸師가 奮起하여 濟門의法孫으로서 洞門과合  
 同의不可를論할뿐더러 이때까지든지 朝鮮佛敎의  
 獨立을 主張하엿습니다。隱으로顯으로 此二師의  
 功績이 적지아니합니다。그럼으로吾人은 二師에  
 向하여 敬慕함을마지아니하는同時 今後라도 此  
 二師와가은人格者가 輩出하기를 希는바입니다。  
 그러온것이寺刹令이頒布되고 寺法이制定됨에 朝  
 鮮佛敎는兩宗으로써 冠하게되엇습니다。그러  
 나此는一個吏員의無學을因하여 二宗의判別을失케  
 한一稱의變態를現出케한것입니다。(未完)

# 錫蘭의佛敎

## 興起時代續

李 英 宰

### 靈髮奉記

廣詞男王 (Mahavamsa 412—434 A. D.) 後諸王子

의王位爭奪로因하여 國內가混亂하여지매 機會를  
 엿본 南印度 提毘族 (Tamil) 이襲來하여 北部  
 一帶를占領하며獅子王統이연속되나 「부부나」(Ra

huna) 無憂王家 (獅子族의一侯國) 로부하 「다」부  
 세」나」(Dhatusena)가義軍을이르키어서「提毘」族을  
 驅하고 首都「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에서王  
 位(433—479)에오른後 國法을嚴施하고 僧綱을  
 勵行하고 比丘佛事를지어 大寺 (Mahavihara)「마  
 나」라僧院 (Manara Pirivena) 及青銅殿의古寺塔을修  
 補하고 다시十餘寺塔을新築하엿스며 如意珠 (○  
 Jewel Gem) 로點眼한佛像(佛奴王時所造云)이잇섯은  
 바 先時에侵入한「提毘」軍「에게 兩眼如意珠을 奪  
 掠을當하엿습니다」 다시青寶石으로點眼하고金銀  
 寶珠로 後光(Halo)을莊飾하엿고 亞彌勒佛像을  
 成造하고 聖齒殿에大享祀를行하고 摩訶陀長老의  
 像을 그의葬地에奉立하여傳敎의大恩을追慕하는等  
 護民護法에큰功이잇스니 이는王自身만이英明하엿  
 습는아니라王의伯父요 亞彌開인 大詩僧「大名」(D  
 hanna) 에게한「가을이만히섯다」

王은大詩僧大名으로하여공 錫蘭島史를論述케하  
 니이것이 大史 (Mahavamsa) 라 「외자」(V  
 jaya)王의 錫蘭征服의로 이王朝에이르기까지의  
 史實을 舒事詩體로述著하엿스니 可謂錫蘭의摩

訶婆羅多 (Mahabharata)라 先時에編纂된島史 (Dip  
 avansa) 와한가지 錫蘭의二大根本史料다。  
 大史는 그後 續史가 僧院史家의손으로繼敎記  
 述되야 一七五八年「다」자되 「다」자신하王」(Raj  
 adi Rajasinha)時代까지의것다。

이靈君「다」부세」나」의治績은實로僧院史家의讚  
 筆에 감하고남음이잇스나 그의末路가甚히慘酷하  
 야 印度頻婆娑羅王을聯想케하이잇스니 그는王子  
 迦葉 (Kassapa I 479—97) 의叛逆을마마서 無慘  
 한生理를當함이다 迦葉이 이가처無道한手段으로  
 王位를 차지하엿스나 大恨을 품고 印度로避禍한  
 王의異腹弟 目健連 (Moggallana) 의來襲을부러워  
 하여 花城인「아누라」다푸라」首都를바리고 天  
 險山地인獅岩 (Siri) 으로王都를옮기고 宮殿을  
 新營하며 憐悔佛寺로寺塔을造營하엿스나 王의惡  
 業은贖하기에 닐우릿섯는듯하여 新都의단숨도변  
 변히 이루기前에 目健連이 大兵을거느리고 印  
 度로부러진니와서 迦葉을獅岩城下에廢黜하고 王  
 統을이어서目健連一世 (Moggallana I 497—516) 가  
 되야 王都를다시「아누라」다푸라」로옮기고 獅